



“언니들 우리도 해냈어요”

16일(한국시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월드컵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물리친 한국대표팀 선수들이 관중석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 사상 첫 동반 4강 “결승서 만나자”

U-17 여자월드컵, 나이지리아 6-5·독일 1-0 각각 꺾어  
스페인-브라질·아일랜드-일본 승자와 22일 결승 진출 다름

남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 동반 4강 진출을 이뤘다.  
 ‘제2의 지소연’ 여민지(함안 대산고)는 혼자서 4골(1도움)을 꽂아 역대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FIFA 주관대회 ‘한 경기 개인 최다골’ 기록을 작성했다.  
 한국은 17일(한국시간) 새벽 트리니다드 토바고 마라벨라의 맨니 램프스타디움에서 치러진 2010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월드컵 대회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전 후반 90분을 4-4로 마치고 나서 연장전반 4분 김아름(포항여전자고)의 결

승골과 4분 뒤 헤딩 페널티골로 헤트트릭(4골)을 기록한 여민지의 활약을 앞세워 6-5로 승리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대회에서 8강에 머물렀던 한국은 사상 첫 4강 진출을 일궈내 최근 막을 내린 U-20 여자월드컵에서 언니들이 완성한 ‘4강 신화’에 이어 한국 여자 축구의 힘을 전세계에 과시했다.  
 나이지리아를 꺾은 한국은 18일 치러지는 스페인-브라질의 8강전 승자와 오는 22일 새벽 5시 아리아마의 레리 콤포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다툰다.  
 한국은 여민지(함안대산고)-주수진(현대정고) 두 톱을 앞세워 나이

지리아 공략에 나섰지만 초반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에 경기 시작 3분 만에 연거푸 두 골이나 내줬다. 나이지리아는 전반 2분 은고지 오코비(델타퀸스)가 오른쪽 구석에서 차올린 코너킥을 로베스 아일라(아다마와 퀸스)가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 슈팅 시도, 첫 골을 따냈다.  
 1분 후 나이지리아의 위니프레드 에예보리아(이봄 스타즈)가 페널티지역 중앙 부근에서 왼발로 추가골을 꽂았다.  
 한국은 전반 14분 이금민(현대정고)의 추격골을 시작으로 반격에 나섰다. 여민지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하차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이금민이 골로 연결시켰다.  
 한국은 이어 전반 23분(여민지), 후반 23분(여민지), 후반 44분(여민

지)에 차례로 골을 터트리며 전후반을 마쳤다.  
 승리의 여신은 태극소녀를 편이였다. 한국은 연장 전반 4분 빠른 역습에 나선 김아름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재역전골을 터트렸고, 연장 전반 8분 코너킥 상황에서 여민지가 강력한 헤딩슛으로 페널티골을 꽂았다. 혼자서 무려 4골을 만들어낸 여민지는 역대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FIFA 주관대회 한 경기 개인 최다골의 주인공이었다.  
 북한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치른 강호 독일과의 8강에서 전반 44분 김금정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북한은 아일랜드-일본 경기 승자와 22일 결승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 여민지 킬러 본색... 벌써 7골

FIFA대회 한국 경기 최다골

역시 여민지였다.  
 2010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을 통해 차세대 대형 스트라이커로 거듭나고 있는 여민지(17,함안대산고)가 한국 선수로서 FIFA 주관대회 역대 최다 골인 4골을 터뜨리는 가관할 득점력을 과시하며 4강 진출에 앞장섰다.  
 여민지는 17일(한국 시간) 오전 트리니다드토바고 산페르난도 마라벨라의 맨니 램프스타디움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 대회 8강전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대회 첫 4강 진출을 이끌었다.  
 특히 여민지는 한국 축구 선수



로써 FIFA 주관대회에서 한 경기 최다 골 기록을 새로 작성하며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종전까지는 여자 축구의 간판 스트라이커 지소연(19,한양여대)이 지난 7월 U-20 여자 월드컵 스

위스와 조별리그 첫 경기(4-0 승)에서 기록한 3골이 한국 선수의 FIFA 대회 최초 헤트트릭이자 최다골이었다.  
 여민지는 또한 남아공과 1차전의 1골1도움과 멕시코와 2차전 2골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 치른 4경기에서 모두 7골2도움을 기록, 득점순위에서도 독일의 키라 말리노프스키(3경기 7골)를 뛰어넘어 1위로 올라섰다.  
 여민지는 이날 8강 상대 나이지리아를 맞아 지난 13일 독일과 조별리그 경기에서 잠시 침묵했던 득점포를 그야말로 ‘폭발’시켰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2골이나 허용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골을 넣으며 경기 흐름을 바꿔놓는 ‘해결사’ 노릇을 톱톡히 해냈다.  
 /연합뉴스

## 신지애-최나연 양보없는 샷 대결

KLPGA 챔피언십 2R 6언더 공동 선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신지애(22,미래에셋)와 최나연(23,SK텔레콤)이 10개월만에 찾은 한국 무대에서 양보없는 샷 대결을 펼쳤다.  
 신지애는 17일 경기도 용인 88골프장 서코스(파72.6천540야드)에서 열린 메트라이프-한국경제 제32회 KLPGA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보기 1개와 버디 1개를 맞바꿔 이븐파 72타를 쳤다.  
 전날 단독선두로 나섰던 신지애는 이를 동안 6언더파 138타를 적어내며 추격해온 최나연과 동타를 이뤘다.  
 신지애에 2타 뒤진 채 2라운드를 시작한 최나연은 버디 3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2언더파 70타를 적어내 광활한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1라운드에서 6타를 줄였던 신지애로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 날이었다.  
 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신지애는 11번홀(파4) 그린에서 홀까지 18m를 남기고 세차려 퍼트를 하는 바람에 이번 대회 첫 보기를 적어냈다. 하지만 신지애는 14번홀(파4)에서 1.5m짜리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려 타수를 만회했다.  
 최나연은 전반에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골라내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지만 후반 들어 추축하면서 리더보드 맨 뒷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15번홀(파3)에서는 티샷이 그린을 빗나갔고 어프로치샷에 이은 퍼퍼트마저 홀을 외면하면서 1타를 잃고 말았다.  
 /연합뉴스

## 29일부터 프로야구 ‘가을 잔치’

한국시리즈 내달 15일

올해 프로야구의 우승팀을 가리는 포스트시즌이 29일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올해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한국시리즈로 이어지는 ‘가을잔치’ 일정을 발표했다. 정규리그 3위와 4위가 격돌하는 준플레이오프는 29일부터 5전3선승제 로 열린다.  
 두산이 3위를 사실상 확정했고 4위는 롯데로 굳어진 가운데 준플레이오프 1~2차전은 3위팀 홈 구장에서 3~4차전은 4위팀 홈에서 벌어진다. 최종 5차전은 10월 5일 개최된다.  
 2위팀과 준플레이오프 승자가

맞붙는 플레이오프는 10월7일부터 2위팀 홈구장에서 열린다. 5전 3선승제로 경기 방식은 준플레이오프와 같다.  
 한국시리즈는 10월15일부터 정규 시즌 1위팀 홈에서 펼쳐진다. 한국시리즈 일정은 격돌하는 팀에 따라 약간 다르다.  
 대회 요강에 따르면 관중 2만 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장을 갖춘 서울팀과 지방팀(또는 서울팀)이 대결할 때와 관중 2만 5000명 이상 수용 규모의 구장을 홈으로 쓰는 지방팀끼리 맞붙었을 때 한국시리즈 1,2,6,7차전은 정규 시즌 1위팀 구장에서, 3~5차전은 플레이오프 승자 홈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불사조 상무 정상에 세계군인농구선수권

‘불사조’ 상무가 제50회 세계군인농구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우뚝 섰다.

이후재 감독이 이끄는 상무는 17일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부 결승 리투아니아와 경기에서 61-58로 이겨 우승했다.  
 1958년 프랑스 대회에 처음 간간 것을 시작으로 이 대회에 모두 18차례 출전했던 상무는 사상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상무는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9위에 머물렀으며 2003년 이탈리아 대회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다.  
 반면 2008년과 2009년에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던 리투아니아는 올해도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상무는 정병국이 17점, 양희종이 15점을 넣으며 공적을 이뤘었다.  
 /연합뉴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故 하상호 님(남/80세)  
 子/子婦: 최현창·이금희, 한정·정미애, 한태·최광숙, 한의·임미아  
 女/ 婿: 최영자·김광동, 손·박태홍  
 \*호실: 201호·발인: 9월18일\*장지: 화순남면선영

故 윤영민 님(남/77세)  
 子/子婦: 윤우림·허지현, 범람·남미경, 김림·심숙희  
 女/ 婿: 윤애정·김형철  
 \*호실: 301호·발인: 9월18일\*장지: 영락공원

故 박원장 님(남/83세)  
 子/子婦: 박기훈·이순옥, 기정·주옥경, 박기석·황영진  
 女/ 婿: 박인자·박현순, 황영규·경애·양일환, 영미·김종민  
 \*호실: 401호·발인: 9월18일\*장지: 강진적천선영

故 박낙열 님(남/62세)  
 子/子婦: 박현수·김미옥, 현준·고혜진  
 女/ 婿: 박지현·이명수  
 \*호실: 101호·발인: 9월19일\*장지: 영락공원

마중까지 믿어주시고  
**금호장례식장** ☎ 062)227-4000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고재산·재식·재결·모친상 발인: 9월18일(토) 08시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03  
 ▲강두승 영구 모친상 김영연, 최민식 범모 상 발인: 9월18일(토) 08시1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05  
 ▲정규료 규면서 부친상 발인: 9월18일(토) 09시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10  
 ▲박중연씨 부친상 김정국 범모상 발인: 9월18일(토) 07시40분 장지: 일실 호국원 연락처: 250-4409  
 ▲이승욱·승준씨 모친상 미량인: 황의복 발인: 9월19일(일) 08시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12  
 ▲최남석씨 부친상 박민규씨 범모상 발인: 9월19일(일) 08시10분 장지: 대전현충원 연락처: 250-4400  
 ▲이재식·재봉씨 부친상 이흥천·배현옥·서길용·조종섭·정수일씨 범모상 발인: 9월19일(일) 09시30분 장지: 담양동면선영 연락처: 250-4407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1관 슈퍼배드(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2관 그랑프리(12세)	2관 해결사(15세)
3관 마루밀아리에티(전제)/아저씨(18세)	3관 무적자(15세)
4관 퀴즈왕(15세)	4관 캐츠엔독스2(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5관 캐츠엔독스2(전제)/무적자(15세)	5관 그랑프리(12세)
6관 슈퍼배드(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6관 마루밀아리에티(전제)/아저씨(18세)
7관 해결사(15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8관 슈퍼배드(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8관 슈퍼배드(전제)/해결사(15세)
9관 무적자(15세)	9관 퀴즈왕(15세)/무적자(15세)
10관 해결사(15세)	10관 퀴즈왕(15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호남최대주최장 / www.cinusa.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원명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권고가격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저시 장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CINUS**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a.co.kr  
**세너스전대3D(4K)상영!!**

1관 그랑프리(12세)
2관 해결사(15세)
3관 퀴즈왕(15세)
4관 슈퍼배드(전제)
5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제)
6관 레지던트이블4(18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8관 무적자(15세)